

워터 슬라이드·점토 수영장... 강진청자축제 시원하게 즐긴다

29일~내달 4일 열려
프로그램 대폭 구조조정

화목 불가마·물레성형
불량 고려청자 깨기 체험

도자공원 스프링클러 설치

전시·공연 행사도 풍성

‘제 45회 강진청자축제’가 ‘흙·불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린다.

특히 관광객이 참여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여름 시즌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물놀이 체험 시설을 크게 늘려 여름 축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자 축제만의 체험프로그램 풍성 = 강진청자축제는 5년(2013~201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명품 축제로, 지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만 33만명에 달했다.

강진군도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 참여도가 낮았던 34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축제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진청자축제 주요 신규 프로그램

- 기획
 - 관광객과 함께하는 점토 밟기 (7.29~8.6 오후 2~5시)
- 체험·놀이
 - 이열치열 화목 불가마 체험 (7.29~8.4 오후 1~6시)
 - 고려청자 깨기 체험 (7.29~8.4)
 - 어린이 점토 밟기 체험 (7.29~8.4)
 - 점토 바다 트리트먼트 (7.29~8.6)
- 부대행사
 - 러브랜턴 메시지 달기 (7.29~8.4)
 - 워터 슬라이딩 운영 (7.29~8.6)
 - 어린이 점트랙 운영 (7.29~8.6)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관광객과 함께하는 점토 밟기 ▲이열치열 화목 불가마 체험 ▲물레성형체험 ▲시원한 점토 바다 트리트먼트 등이 꼽힌다.

‘점토 밟기’의 경우 600명이 점토를 밟고 놀면서 청자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으로, 점토 수영장을 설치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오후 2시부터 9일간 옛 도예공장 일대에서 열린다.

‘화목 불가마’, ‘고려청자 깨기’, ‘점토 밟기’, ‘점토 팩’ 체험행사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행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화목가마의 열기를 체험하고 불량품 청자를 깨는 체험으로 우수한 청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4일까지 청자촌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강진청자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물레성형’ 체험은 전통물레 50개를 비치하고 다양한 성형 과정을 체험토록 한 것으로,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이외 점토를 국수처럼 만들어 원하는 형태로 쌓아올리는 ‘청자 코일링’, 청자 풍경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리고 장식하는 ‘청자 풍경만들기’ 등도 청자 축제만의 독창적 체험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름철 축제, 시원하게 = 무더위가 절정인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는데 신경을 썼다는 게 강진군 설명이다. 우선, 150m짜리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

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고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자공원 일대 100m 구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점토 수영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시원한 물과 얼음 등을 비치, 점토로 만지고 문지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점토 바다 트리트먼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 풍선을 활로 쏘거나 칼로 터트리는 열결장군 무예체험 행사도 더위를 식힐 행사로 마련된다.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오색 우산 그늘, 그늘막, 차광막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청자 구입, 유적지 둘러볼 기회도 = 강진청자축제는 청자 판매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물레성형 경진대회 장면. <강진군 제공>

는 축제다. 지난해만 33만명이 찾아 21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군은 우선, 3% 할인된 가격으로 청자 구입전용쿠폰을 판매하고 축제 기간중 모든 청자를 3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다기세트 등의 경우 축제 기간 매일 두 차례씩 50~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폭탄세일’ 한다. 이외 행사장 주변에 선 다양한 경매, 즉석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군은 또 청자촌에서 가우도~영랑생가~다산초당~백련사 등을 오가는 문화유적 투어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시·공연 행사도 풍성 = 축제기간 중 31일 오후 2시부터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 매병’과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고 한옥청자판매장에서 한·중 도자기 교류전이 열려 양국간 도자기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기념 특별전’, ‘매병에 담긴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마련된 ‘제 17회 고려청자 특별전’도 행사기간 놓쳐서는 안될 전시로 꼽힌다.

대형 청자로 만든 등 30개, 역대 청자축제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수국

日수출 40만개 돌파

2011년부터...수출액 22억

강진의 강진 수국의 누적판매량이 40만개를 돌파하는 등 화훼 마케팅이 만발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 본으로 시범 수출을 시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수국의 본격적인 일본 수출이 이뤄지면서 판매량 40만개를 돌파했다.

군은 지난 1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강진수국 일본수출 40만개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강진 수국 재배에 들어간 뒤 현재 20농가가 4.5ha 면적에서 재배하는 등 면적을 크게 늘렸다. 전국 면적의 30%, 전남의 5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수국생산지다.



품질도 손색이 없다. 지난 2011년 3만개의 수국 시범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수출물량이 41만개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22억원 상당이다.

국내 수국 총 수출물량의 88%를 점유하면서 전국 제1의 절화수국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용 수국의 용기 양액재배 시범사업(5000만원), 인위화색조절 사업사업(2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화훼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물고기 1만2000마리 맨손으로 잡아라

정남진 물축제 체험장

뱀장어·붕어·잉어 등

3천만원 어치 구입 공급

뱀장어·붕어·잉어 1만2000마리를 잡아라.

장흥군이 ‘제 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1만2000마리가 넘는 물고기를 체험장에 던져놓는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축제장 내 장흥교~예양교 일대에 운영될 ‘민물고기잡이’ 체험장에 3000만원 어치의 물고기를 구입해 공급기로 했다.

뱀장어는 150kg(kg당 3~4마리), 붕어 1334kg(kg당 5~7마리), 잉어 1334kg(kg당 4~6마리) 등으로 대략 1만 2000마리가 넘는다. 군은 축제 기간 특별 이벤트



장흥물축제의 민물고기잡이체험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체험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로 치러지는 민물고기잡이로, 관광객들에게 더위를 식히고 축제의 재미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제 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물과 숲-休’를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대에서 펼쳐진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모텔 급 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수준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용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무인텔

엘도라도 리조트 콘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3동), 객실 52개
- 리모델링후 연 순수익 3억 이상 가능
- 온천지구 내 “직업테마파크”등 600억 투자 예정
- 시세/감정가 - 60억
- 매매 - 42억
- 상담문의 H.010-6838-1230